

“함께 바이올린 배울 수 있어 기뻐요”

한국예술영재교육원 합격한 호남예술제 출신 남린·남빈 자매

언니는 3년전, 동생은 올해 오디션 통과 입학
영재원 음악원 한 가족 같은 악기 레슨 처음
나란히 카네기홀 무대도...서울 이주 본격 수업



“엄마, 나 정말 합격한 거 맞아. 진짜야?”
꼬마 바이올리니스트 남빈(조봉초 2년)양은 합격 소식을 듣고도 몇번을 되물었다. 언니가 다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원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였다.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이하 영재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예술영재를 육성하기 위해 2008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설립한 최초의 국립 예술영재교육기관이다. 합격자는 전액 무료로 최고의 교수진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클래식 아티스트를 꿈꾸는 어린 예술가들에게 선망의 대상인 영재원 음악원에 자매가 나란히 다녀 눈길을 끈다. 남린(조봉초 5년), 남빈(조봉초 2년) 자매가 주인공이다. 영재원 음악원에서 한 가족이 같은 악기로 레슨을 받는 경우는 처음이다.

언니 린양은 지난 2014년 영재원에 입학한 후 매년 오디션을 거쳐 올해로 3년 연속 레슨 받을 기회를 얻었으며 지난해부터는 김남운 선생을 사사하고 있다. 동생 빈양은 올해 영재원에 합격했다. 두 사람 모두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호남예술제 출신이다. 린양은 초등학교 2학년 때인 지난 2012년 호남예술제에서 최고상을 수상했고, 빈양도 지난해 동상을 받았다.

자매는 4살 때부터 이항희씨에게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다. 린양은 스트라드&인터내셔널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 입상했고 American Protage Concert Competition에서 일등상을 받아 카네기홀 위너 콘서트 참가했다. 또 수원시향과 협연 무대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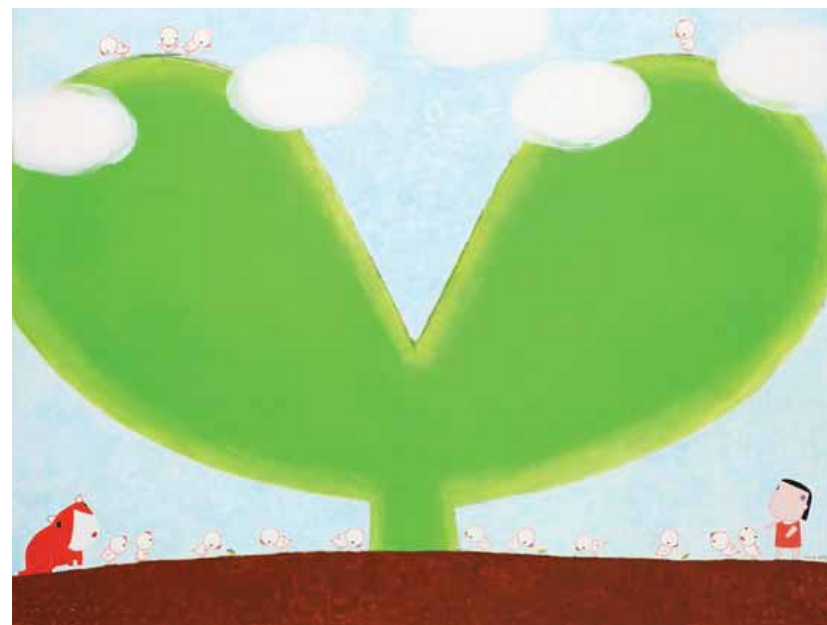
지난해 언니와 함께 카네기홀 무대에 섰던 빈양은 이번 영재원 합격을 계기 삼아 본격적으로 꿈을 키워갈 예정이다. 빈양은 끼가 많다. 지난해에는 가수 리안의 뮤직비디오 ‘예쁜 아기’에 출연하기도 했다.

주말마다 영재원과 개인 레슨 등을 위해 서울을 오갔던 자매는 3월부터 서울 신중초등학교로 전학, 서울 생활을 시작한다.

“이번 영재원 오디션 곡이 빈이랑 같았어요. 제 연습도 열심히 하고, 빈이가 연습하는 것도 도와줬어요. 빈이와 함께 연습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서울 생활이 조금은 두렵기도 하고, 기대도 돼요. 동생과 함께 멋진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도록 열심히 할 생각이에요.”

“공연이나 대회에 나갈 때는 한번도 떨린 적이 없는데 이번 오디션 때는 진짜 많이 떨렸어요. 지금은 언니가 훨씬 연주를 잘 하지만 앞으로 언니를 이기고 싶어요. 김남운 선생님처럼 멋진 바이올린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자매 바이올리니스트의 앞날이 기대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형진 작 ‘거대 새싹’

봄꽃·새싹 로맨스에 깨어나는 봄

광주 롯데갤러리 3월 3일~4월 3일 신춘기획전

광주 롯데갤러리가 올해 신춘기획으로 봄의 민감과 생명력을 전달하는 ‘봄꽃 로맨스’전을 3월3일부터 4월3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김경란, 노충현, 박상화, 박형진, 성유진, 신창우, 유재명, 이미경 등 작가 8명이 참여한다. 회화, 평면, 설치, 영상 등 다양한 장르 작품 18여점을 통해 다양한 봄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김경란 작가는 버려진 페트병을 꽃으로 재탄생시켰다. 작품 ‘보랏빛 세상’은 페트병 수집개를 자르고 구부려 꽃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노충현 작가는 잡지나 인쇄물 등 매체에서 모은 이미지를 콜라주, 덩그러리, 굵어내기 등 기법으로 꽃을 묘사했다. ‘Happy garden’ 연작은 꽃을 통해 가족에 대한 사랑을 따뜻하게 전한다.

인상적인 미디어아트를 보여주는 박상화 작가는 영상 작품 ‘Inner Dream-reflection’(6분 분량)을 출품했다. 꽃, 풀잎 등 자연물 움직임을 촬영한 후 역동적인 3D로 재구성했다. 자연과 우주의 순환을 담으며 자연만물에 대한 경외심을 역설한다.

박형진 작가는 어린이가 시각으로 푸른 새싹을 관



노충현 작 ‘Happy garden’

찰했다. 커다란 초록 새싹 아래 뛰노는 어린이들이 그린 회화 ‘거대 새싹’은 순수함과 동심을 자극한다. 한편, 갤러리는 전시기간 내 매주 토요일마다 ‘봄빛 종이꽃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62-221-1811 ~2. /김용희기자 kimyh@

광주여성단체협의회 정기총회

손자녀 돌보미 사업 등

올 중점 추진 사업 계획 보고

광주여성단체협의회(회장 문진수·이하 광주여협)가 25일 광주여성단체회관에서 제30차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 계획 등을 보고했다. <사진>

‘손자녀 돌보미 사업’은 광주여협이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풍부한 육아 경험을 갖고 있는 조부모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손자녀를 돌보는 프로그램으로 올 한해 동안 200여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도 눈길을 끈다. 시니어 남성이 참여하는 ‘요리하는 청춘’과 ‘남



편 가사 육아 참여교실’은 가족 구성원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그밖에 아마추어합창단들의 모임인 ‘모두 함께 부르자-해피 송’을 진행하며 10월에는 광주 여성대회와 무등여성대상 시상식도 갖는다.

여협은 이날 총회에서 자동차 100만대 생산을 위해 완성자 유지에 필요한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서한 기 변호사를 고문 변호사로 위촉했다.

문진수 회장은 “광주여협이 진행하는 여러 사업 중 출산 장려와 노인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손자녀돌보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회원들과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장성 진원성 유적지서 광주·전남 첫 ‘확쇠’ 출토

장성군 진원면 일원 진원성 유적지 발굴조사 현장에서 확쇠(나무 기둥을 바닥과 고정시키는 회전 장치·사 진)가 출토됐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처음이다.

백제시대 축조된 것으로 알려진 진원성은 지난 2014년부터 전남문화재연구원이 진행한 조사결과 실체가 확인되고 있다. 남문과 성벽 구조 일부가 확인됐고 동·서·북문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파악되고 있다.

지난달부터 복문 추정 위치에서 진행한 2차 조사에서는 기와류와 철기유물이 출토됐다. 이번에 발굴한 확쇠는 동근 하단부에 돌기가 있는 기존 유물과 달리 상단부가 사각뿔 형태인 독특한 모양을 띠고 있다. 그동안 확쇠가 출토된 유적은 문경 고모산성 서문, 경주 명월성 북문지, 전주 동고산성 북문지 등 전국 9 곳이다.



문화재연구원원은 이번 발굴에서 백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지만 성벽 축성법 등으로 미뤄 축성시기를 백제시대까지 보고있다. 문화재연구원원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장기 계획을 세워 성 내부 건물, 우물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할 방침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그린알로에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나이 들어도 자신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